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현 경 실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코로나19 시대의 음악
원격수업에 대한 교사 인식 조사

2022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윤 선 혜

코로나19 시대의 음악
원격수업에 대한 교사 인식 조사

현 경 실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윤 선 혜


인 준 서

윤선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1년 11월

심사위원장 김 명 숙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 임 인 경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 현 경 신 (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해 이루어진 음악 교과 원격수업 운영 현황과 그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앞으로 더욱 효과적인 음악 원격수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따라서 2021년 원격수업을 진행한 중등 음악 교사 14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그 내용은 원격수업의 지원 및 계획, 활동 영역별 지도 현황, 원격수업의 결과 및 학생들의 태도, 원격수업의 장단점과 개선점에 대한 것이었다. 인터뷰 내용이 전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엑셀을 이용해 코딩, 분석하였고, 분석을 통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은 원격수업 운영 지침에 관한 안내를 제공하였으나 음악 교과 관련 내용은 부족하였다. 따라서 교사들은 동료 교사와의 협업을 통해 원격수업을 준비하였다. 또한 원격수업을 위한 학교의 지원은 각 학교마다 편차가 존재했다.

둘째, 교사들은 대부분 원격수업을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운영했다. 감상 영역은 기존 대면수업과 별 차이 없는 강의식 수업으로 교사들의 부담이 없어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기 수업은 원격으로 진행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느끼며 사용 중인 플랫폼들의 기능 개선을 요구하였다.

셋째, 학생들의 참여도와 학업 성취도는 대면 수업에 비해 떨어졌으며 학생들은 등교하여 대면 수업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넷째, 교사들이 느낀 원격수업의 긍정적인 영향은 감염의 위험에서 벗어나 음악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학교 수업의 다양한 형태를 제시하여 미래 수업을 대비하는 발판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을 실천할 계기를 마련해주고 채팅을 통해 소극적인 학생들과 소통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다섯째, 교사들이 느낀 원격수업의 부정적인 영향은 학생들은 수업에 집중하기 힘들어하고 학생들 간 학습 격차 또한 더욱 심해졌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음악 활동의 기회를 제한했으며 개별적 피드백 또한 어려워졌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4
3. 연구의 제한점	4
4. 용어 정의	4
II. 이론적 배경	5
1. 원격수업의 개념	5
2. 원격수업의 실행	9
3. 선행연구 고찰	16
III. 연구 방법	20
1. 연구 대상	20
2. 연구 절차	21
3. 연구 도구	22
4. 연구 방법	23
IV. 연구 결과	24
1. 음악과 원격수업 운영 현황	24
2. 원격수업에 대한 음악 교사들의 인식	44

V. 결론 51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Ⅱ-1> 시간과 공간 측면에 의한 교육 실제의 구분	6
<표Ⅱ-2> 원격수업의 유형과 특징	10
<표Ⅱ-3> 지원 대상별 LMS 주요 기능	12
<표Ⅱ-4> 커뮤니티 플랫폼과 장단점	13
<표Ⅱ-5> 실시간 화상 플랫폼과 장단점	14
<표Ⅲ-1> 연구 대상의 기본적 사항	20
<표Ⅲ-2> 인터뷰 질문사항	22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쳤고 일상의 많은 부분을 갑작스럽게 변화시켰다. 이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외출을 할 수 없으며, 외식을 하거나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는 방문자 명부를 필수로 작성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기업은 재택근무를 시행했으며, 학생들은 가정에서 컴퓨터 화면을 통해 수업을 받는다.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경제, 문화, 교육, 생활양식 등 사회의 여러 분야가 비대면으로 전환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임시방편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표준이 되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로 정립되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Thomas L. Friedman)은 자신이 기고한 칼럼에서 “세계는 코로나 이전(BC: Before Corona)과 코로나 이후(AC: After Corona)로 나뉠 것이다”¹⁾라며 전염병으로 인해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수 있다고 예견하였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더 이상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교육, 다가올 다른 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원격수업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온라인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원격수업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월등히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원격수업은 4차 산업혁명의 시작과 함께 꾸준히 활성화되어 왔으며 이에 발맞추어 교육 공간과 교육 환경에도 새로운 변화가 도모되어야 한다고 주장되어왔다.²⁾ 즉, 원격수업이 대면 수업의 보조적 도구로써 공

1) Thomas L.(2020). “Our New Historical Divide : B.C. and A.C.”. NYT. (2021년 11월 접속)

간의 이동이나 환경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형 교육을 위한 대안이 되어야 하며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³⁾

2020년 급작스럽게 시행된 원격수업은 많은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의 뉴노멀을 이끌 주요 트렌드’에 대해 연구한 윤대구⁴⁾에 따르면 교사들의 많은 노력 덕분에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유지 할 수 있었다. 교사들은 원격수업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찾아냈다. 콘텐츠 중심 수업으로 시작한 원격수업은 점점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학생들과 더욱 원활한 소통도 가능해졌으며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며 오히려 더 효율적인 지도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비대면 음악 온라인 원격수업 실태’에 대해 연구한 권수미⁵⁾에 따르면, 2020년 실시한 원격수업에서 실기 교육이 중요한 음악 교과는 어려움이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악기가 갖춰지지 않거나 각자 다른 인터넷 환경으로 인해 소리를 직접 표현하고 감상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는 연구 결과이다. 음악적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음악교육을 위해서는 음원의 질, 이를 전달하는 음향, 음향이 울리는 수업 공간, 음악 활동을 위한 악기, 음악 수업 매체 및 수업전략의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하지만 급작스럽게 바뀐 수업 환경에서 음악의 교수 학습 설계와 실행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음악 교사가 원격수업에서 겪은 문제점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앞으로 발생할 제2의 코로나19 사태를 대비하고 더욱 효과적인 원격수업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원격수업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육 현

2) 박열 외(2020). 학교공간혁신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교실 사업 매뉴얼 중심으로-. 교육시설논문지, 27(4). p.11.

3) 손혜숙 외(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학 교육 탐색 : 블렌디드 수업의 가능성 연구. 문화와 융합, 43(2). p.15.

4) 윤대구(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의 뉴노멀을 이끌 주요 트렌드. KISA REPORT, 12. p.1.

5) 권수미 외(2020). 비대면 음악 온라인 원격 수업 실태 연구. 예술교육연구, 18(3). p178.

장에서 교사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느낀 한계점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해 이루어진 음악 교과 원격수업 운영 현황과 그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앞으로 더욱 효과적인 음악 원격수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격 수업의 지원 및 계획은 어떠했는가?

둘째, 음악 교과에서 준비 및 활동 영역별 지도 현황은 어떠한가?

셋째, 원격 수업의 결과 및 학생들의 태도는 어떠한가?

넷째, 원격 수업의 장·단점과 개선점은 무엇인가?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편의 표집법으로 음악과 원격수업을 진행한 중등교사 14인을 선정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기에 연구 대상이 제한되어있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4. 용어 정의

본 연구에서 원격수업이란, 코로나 19로 인해 시행된 온라인 개학에서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를 의미한다. 원격수업은 수업의 공간적 특성 및 시간적 특성을 기준으로 동시적 원격수업 및 비동시적 원격수업으로 구분 가능하다.⁶⁾

6) 교육부(2020).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2020학년도 초중고특수학교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 교육부 보도자료. p.2.

Ⅱ. 이론적 배경

1. 원격수업의 개념

가. 원격수업의 정의

급변하는 사회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계속적 학습은 필수적이다. 새로운 학습과 훈련에 대한 요구는 학교 교실을 벗어난 또 다른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원격수업은 점점 발전하게 되었다. 물론 과거부터 우편물을 사용한 교육 등 테크놀로지가 발전되기 이전부터 원격수업은 시행되고 있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점차 그 역할이 확장되었다.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다양한 원격수업을 가능하게 하였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원격수업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어 학자들 간에 합의된 개념을 찾기는 어려웠다.

홀버그(Holmberg, B.)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분리된 상태의 교육을 원격수업이라고 정의했다. 같은 물리적인 공간에서 지속적이고 즉각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수업 활동을 대면수업과 비교되는 가장 기본적인 특성으로 정리하였다.⁷⁾

무어(Moore M. G.)와 키어슬리(Kearsley, G.)는 분리된 장소에서 일어나는 계획된 학습으로 기존의 교수활동으로 분리된 특별한 장치를 필요로 하는 것을 원격수업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들은 원격수업 설계에 있어서 대면수업과 다른 교수·학습 설계,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⁸⁾

7) Holmberg(1989), The concept, basic character and development potentials of distance education. Distance Education, 10(1), pp.127-135., 김영환 외(2003). 원격교육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pp.11-12.에서 재인용

8) Moore, M.G., Kearsly, G.(1996). Distance education: A systems view. Belmont, CA:

미국원격교육협회의회는 원격수업을 테크놀로지에 의해 중재된 정보와 수업을 통한 지식과 기술의 획득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대면 수업보다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능력이 원격수업에 있어서 중요한 성공 요인이라고 강조하였다.⁹⁾

덴 콜드웨이(Dan Coldway)는 시공간의 분리 여부를 중요시하였다. 시간과 공간이 모두 분리된 형태의 교육이 가장 순수한 원격교육이며 시간은 동일하지만 공간이 분리된 형태도 원격수업의 하나로 보았다 콜드웨이가 구분한 시공간 측면을 활용한 교육의 실체는 다음 <표Ⅱ-1>¹⁰⁾과 같다.¹¹⁾

<표Ⅱ-1> 시간과 공간 측면에 의한 교육 실체의 구분

		공간	
		동일	상이
시간	동일	전통적인 교실 교육	동시적 원격교육 (예: 인공위성 활용 원격 교육)
	상이	미디어 센터, 컴퓨터 랩	비동시적 원격교육 (예: 웹 기반 교육)

우리나라 교육부는 수업의 교수·학습 활동이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수업 형태를 원격수업으로 정의하였다. 원격수업은 시공간적 특성을 기준으로 동시적 원격수업과 비동시적 원격수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실시간 화상교육 등 동시적 원격수업 또한 원격수업으로 분류하였다.¹²⁾

이상의 원격수업에 대한 정의를 살펴볼 때 원격수업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공간적으로 분리된 상황에서 매체를 통해 중재되는 교수·학습 활동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¹³⁾

Wadsworth Publishing Co. p.2., 김영환 외(2003). 위의 책. p.12.에서 재인용

9) 김영환 외(2003). 위의 책. pp.12-13.

10) 이동주 외(2019). 원격교육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p.5.

11) 이동주 외(2019). 위의 책. p.5.

12) 교육부(2020). 앞의 책. p.2.

13) 신나민 외(2020). 교사와 예비교사를 위한 원격교육론. 박영스토리. p.9.

나. 원격수업의 특성

위에서 살펴본 정의를 바탕으로 원격수업에 대한 중요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격수업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분리되어있다. 원격수업을 규정하는 가장 큰 특성이며 초기에는 시·공간적 분리된 상황이 많았으나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동시 상호작용이 원활해져 시간적 분리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장소에서 원격으로 학습자가 학습하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시간적 분리 역시 원격수업의 중요 특성이다.¹⁴⁾

둘째, 매체를 통한 중재가 일어난다. 원격수업은 분리되어 있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위해 소통 매체에 의존하고 있다. 교과 내용, 교수자, 학습자가 서로 분리되어있더라도 다양한 매체의 중재를 통해 극복할 수 있었다. 원격수업의 가장 큰 숙제는 대면 수업만큼 효율적인 상호작용의 제공이었는데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문자, 음성, 영상 같은 소통 매체를 통해 교육과 학습이 가능해졌다. 책, 교재 같은 인쇄매체와 전화, 라디오 등 음성 매체, 텔레비전, 비디오 등의 영상매체 모두 원격수업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 매체이다.¹⁵⁾

셋째, 일정한 수준 이상의 제도적 기반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원격수업 역시 하나의 형식적 교육으로써 교수활동의 설계, 개발, 실행, 평가의 과정이 체계적이어야 하며 이런 시스템을 갖춘 교육조직체에 의해 생산되어야 한다. 즉, 우연히 유튜브를 보고 무언가를 배웠다고 해서 원격수업에 참여했다고 할 수 없다. 어떤 제도의 뒷받침 없이 이루어지는 학습은 원격수업과 구분된다.¹⁶⁾

넷째, 전통적인 수업과 달리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최근의 원격수업은 학습자와 교수자 간 상호작용과 더불어 다른 친구들과의 협동학습을 유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습이 학생 혼자서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14) 김영환 외(2003). 앞의 책. p.13.

15) 신나민 외(2020). 앞의 책. pp.9-10.

16) 이동주 외(2019). 앞의 책. p.5.

경우가 많다.¹⁷⁾ 따라서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은 성공적인 원격수업을 위해 필수적이다. 교수자는 성공적인 원격수업을 위해 학습자에게 원격수업의 특성과 자기 주도적인 학습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원격수업을 힘들어하는 학습자가 있다면 주위 환경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¹⁸⁾

17) 이동주 외(2019). 암의 책. p.5.

18) 신나민 외(2020). 앞의 책. p.15.

2. 원격수업의 실행

가. 원격수업 유형

원격수업에서 상호작용은 학습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습자의 참여를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무어가 상호작용의 주체에 따른 유형화를 제시한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 시간과 공간의 동시성 여부, 기술 발전에 따른 특성 등이 고려되어 원격수업에서 상호작용의 유형과 속성을 규명하는 시도가 진행되어 왔다.

콜드웨이는 원격수업에서 시공간의 상이성에 따라 동시적 원격수업과 비동시적 원격수업으로 구분하였다. 동시적 원격수업에서는 전화 혹은 쌍방향 비디오 컨퍼런싱을 활용하여 즉각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비동시적 원격수업은 학습자와 교수자가 각자 편한 시간과 장소에서 교수·학습활동이 진행된다. 이 경우 우편통신이나 이메일, 사전 녹화된 영상을 활용하여 공유하는 방식, 그리고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LMS), 토론 게시판을 활용하는 비동시적 상호작용이 일어난다.¹⁹⁾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8조를 통해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국의 교사와 학생들이 전혀 접촉하지 않은 상태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수업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발표하였다. 교육부가 제시한 원격수업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형태이며 교실 안 상호작용이 중심이 되는 전통적인 대면수업과 구분하여 이러한 형태의 원격수업을 비대면 수업으로 칭하였다. 코로나19 맥락에서 시행된 원격수업은 상호작용의 동시성 여부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그리고 기타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수업 등으로 세분화된다.²⁰⁾ 교육부가 제시한 원격수업의 유형을 정리

19) 신나민 외(2020). 위의 책. p.50.

하면<표Ⅱ-2>²¹⁾와 같다.

<표Ⅱ-2> 원격수업의 유형과 특징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시간 원격수업 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사와 학생 간 화상 수업을 실시하며,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이 가능한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은 지정된 녹화가의 혹은 학습콘텐츠를 시청하고 교사는 학습내용을 확인·피드백하는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가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라 온라인으로 학생들에게 과제 제시 후 피드백하는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시적 상호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동시적 상호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동시적 상호작용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실시간 원격수업 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사·학생 간 화상 수업을 통해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의 즉각적 피드백이 가능한 형태이다. 이를 위해서는 줌, 웹엑스, 구글 미트, MS 팀즈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은 교사가 사전에 강의를 녹화하거나 관련 학습 콘텐츠에 따라 기존 콘텐츠 및 자체 제작 콘텐츠를 찾아 EBS 온라인 클래스, e-학습터 등 학습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은 교사가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라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과제를 제시하고 피드백을 주는 방식이다. 학생들은 학급 홈페이지, SNS 등에서 수업 시간별로 제공되는 과제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학급 홈페이지나 SNS 등에 제출한다.²²⁾

20) 교육부(2020). 앞의 책. pp.2-3.

21) 신나민 외(2019). 앞의 책. p.53.

22) 신나민 외(2019). 위의 책. p.53.

나. 원격수업 플랫폼

플랫폼은 단어 그대로 구획된 땅이란 뜻의 플랫폼(plat)과 형태란 뜻의 폼(form)이 합쳐진 단어이다. 따라서 플랫폼이란 경계가 쳐진 땅의 형태 즉 어떠한 ‘공간’을 의미한다.²³⁾ 그동안 플랫폼은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단어였지만,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그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장되었고 이제는 현대산업에서 대부분 기업은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거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은 교육 분야에도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세계 명문 대학의 강의를 이제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대형 온라인 공개강좌)나 OER(Open Educational Resources: 공개 교육자료)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학점이나 학위 취득 또한 가능하다. 특히 원격수업에서 플랫폼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이며 물리적으로 분리된 교수자와 학습자는 플랫폼을 통해 교수·학습 활동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원격수업 플랫폼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교수·학습 활동을 하는 공간을 의미하며 교육 콘텐츠가 생산 및 공유되는 원격수업의 전반적인 과정이 운영되고 관리되는 곳이다.²⁴⁾

원격교육 플랫폼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콘텐츠 공유 플랫폼이다. 원격수업을 운영할 때 교사가 직접 콘텐츠를 만들기도 하지만 기존의 콘텐츠를 활용하거나 재구성하기도 한다. 콘텐츠 공유 플랫폼은 OER 플랫폼이라고도 하며, 플랫폼 안에서 교육 동영상, 지도안, 학습자료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가 유통된다. 이 유형의 대표적인 플랫폼은 유튜브, 국내대학 강의를 제공하는 KOCW(Korea Open CourseWare), 한국형 MOOC 플랫폼인 K-MOOC 등이 있다.²⁵⁾

둘째,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이하 LMS)이다.

23) 신동희(2014). 인간과 컴퓨터의 어울림. 커뮤니케이션북스. p.103.

24) 신나민(2020). 앞의 책. pp.105-106.

25) 신나민(2020). 위의 책. p.107.

LMS는 온라인 강의실 같은 공간으로 교수·학습 활동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진다. LMS의 기능은 지원 대상, 수행 활동 등 분류기준이나 기술 특성에 따라 다양하다.²⁶⁾ 지원 대상에 따른 LMS의 주요 기능은 다음 <표Ⅱ-3>²⁷⁾과 같다.

<표Ⅱ-3> 지원 대상별 LMS 주요 기능

지원대상	주요 기능
교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목개설 및 관리 기능: 강의계획서, 공지사항, 강의목록 • 학습관리 및 평가 기능: 학생 관리, 출석 관리, 진도 관리, 학습 참여 관리, 과제 관리, 시험 관리, 1:1 상담 • 성적관리 기능: 학업성취도 종합 평가 및 성적 산출 기능 •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관리 기능: 학습자료실, 토론방, 프로젝트방, 설문, 메일, 쪽지, 채팅, 커뮤니티, 블로그 등 • 콘텐츠 개발 및 관리 기능 • 기타 기능: 강의평가 결과 조회, 조교 관리, 개인정보 관리 등
학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기능: 강의 수강, 강의계획서, 공지사항, 출석 관리, 학습관리, 성적 확인 • 시험 기능: 시험응시, 퀴즈응시, 오답 노트, 부정행위 방지 등 • 과제 기능: 과제 제출, 확인, 첨삭지도 •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기능: 학습 자료실, 토론방, 프로젝트 방, 설문, 메일, 쪽지, 채팅, 커뮤니티, 블로그 등 • 기타 기능: 개인정보 관리, 학사지원 기능 등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자 지원, 학습자 지원 영역 전체 관리 기능 • 강의실 관리 기능 • 교육과정 관리 기능: 과정 정보 관리, 콘텐츠 및 교재 등록 • 학습 운영 및 수강 관리 기능: 학습정보 관리, 수강 진행 관리, 권한 관리 등 • 운영자 지원 기능: 사용자 관리, 콘텐츠 관리, 커뮤니티 관리, 상담 관리, 학사 관리, 각종 통계 관리, 모니터링 기능

26) 신나민(2020). 위의 책. p.107.

27) 박종선(2013). 스마트이러닝. 교문사. p.51.

셋째, 커뮤니티 플랫폼이다. 교수자-학습자, 학습자-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커뮤니티 공간도 원격수업 플랫폼의 한 유형이다. 문제 기반 학습이나 프로젝트 학습 등을 진행할 때 필요하며 자주 활용되는 플랫폼으로는 위두랑, e학습터, MS팀즈, 클래스팅,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등이 있다. 각 플랫폼마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교사는 수업 상황에 알맞은 적절한 플랫폼을 선정해야 한다.²⁸⁾ 커뮤니티 플랫폼에 따른 장단점은 다음 <표 II-4>²⁹⁾와 같다.

<표 II-4> 커뮤니티 플랫폼과 장단점

	특징	장점	단점
위두랑	디지털교과서와 연계한 자기주도적 교육 구현	모둠단위활동, 반단위 과제부여, 포트폴리오 작성이 용이함	디지털교과서 중 일부 교과를 지원하지 않음
e학습터	사이트 내 공유평가지, 자체제작 평가지 제공	진도율 및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이수여부 설정 가능	강의 주제 속 업로드 된 콘텐츠 수정 불가
EBS클래스	EBS 자체 강의 영상 활용	OX퀴즈, 객관식, 토론 기능 제공	단체 아이디 생성기능 미지원
구글 클래스룸	구글 교육 툴 활용	과제중심평가에 용이함	교육용 G Suite계정 자체 생성 불가
MS팀즈	MS 오피스 365를 활용하여 협업 과제 수행 가능	협업과제 수행에 용이함	단체 아이디 생성이 불가능해 개별 가입 필요
클래스팅	의사소통 커뮤니티	학생, 학부모와의 소통에 최적화됨	일부 콘텐츠가 유료로 제공됨
네이버 밴드	의사소통 커뮤니티	게시판 기능과 라이브방송 가능	단체 아이디 생성이 불가능해 개별 가입 필요
카카오톡 단톡방	채팅 형태로 즉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	신속한 정보전달이 가능	게시판 기능이 미흡함

28) 신나민(2020). 앞의 책. p.110.

29) 박상훈 외(2020). 원격교육 수업 실행 방안. KERIS 이슈리포트. pp.16-17.

마지막으로 실시간 화상 플랫폼이다. 최근 원격수업에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실시간 화상 플랫폼을 통해서 교수자와 학습자가 동시에 접속하여 출석 확인이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발표나 토론 등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³⁰⁾ 실시간 화상 플랫폼에 따른 장단점은 다음 <표 II-5>와 같다.³¹⁾

<표 II-5> 실시간 화상 플랫폼과 장단점

	특징	장점	단점
줌 (ZOOM)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됨	링크만으로 쉽게 접속이 가능함 실시간 화상회의에 최적화된 기능 제공	프로젝트 기반과 같은 협업 과제 해결 관련 기능이 부족
구글 미트	G Suite와 연계	브라우저서 바로 실행	크롬에서 최적화
MS팀즈	MS 오피스 365 프로그램과 연계	협업과제 해결을 위한 공유 문서 작성 등이 가능함	화상화면이 최대 4명까지만 노출됨
네이버밴드 라이브방송	게시판 기능에 라이브 방송을 추가할 수 있음	간단하게 영상을 송출할 수 있음	교수자 외 학습자는 음성 기능이 지원되지 않음
카카오 라이브톡	가장 심플하고 즉각적인 소통 창구	실시간으로 소통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으로 친숙함	음성을 통한 대화가 어렵고 게시글 기능이 약함

30) 신나민(2020). 앞의 책. p.110.

31) 박상훈 외(2020). 앞의 책. p.17.

구루미	64분할 화면의 화상회의 플랫폼	최대 10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함	수용	유료 서비스로 접근성이 낮음
네이버 라인웍스	메신저, 메일, 주소록, 설문, 파일 공유, 드라이브, 게시판 등의 부가 기능 탑재	최대 1000명까지 수용	수용	유료, 크롬에 최적화
리모트미팅	화상회의 시 보고 있는 문서를 참가자들에게 표출	분할 화상 화면에 30명 표출할 수 있는 강점		파일 자체 공유 기능 미보유
시스코웹엑스	가상 세부 세션을 별도로 열어 학습, 그룹 협업 유도	브라우저에서 바로 실행		무료 버전의 경우 녹화 기능 미지원
스트림 야드	브라우저를 통한 방송강의 플랫폼	다양한 사이트로 방송영상 동시 송출	방송영	채팅이외의 쌍방향 소통 기능 부재

3. 선행연구

비대면 음악 온라인 원격수업의 운영 실태와 음악 교사 인식을 연구한 권수미, 임은정³²⁾은 음악 교과 원격수업의 운영 방법, 수업 내용, 수업 평가 방법과 원격수업에 필요한 지원, 연구 등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음악 원격수업을 위해 요구되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2020년 1학기 동안 비대면 온라인 원격수업을 실시한 중·고등학교 음악 교사 37명의 온라인 설문 조사 응답 결과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중등 음악 교사들은 비대면 음악 교과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수업 구성과 수업 방식을 익히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동시에 음악 교과 수업의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 온라인 음악 수업의 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은 온라인 음악 교과 수업 운영 매뉴얼과 시스템을 개발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음악 교과 교육과정과 수행평가의 축소와 재편성 방안을 마련하며, 온라인 음악 실기 활동을 위한 음악 수업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음악 교사들은 음악 교과의 특성과 학생들의 음악적 수준을 반영한 온라인 음악 수업을 연구하고, 온라인 음악 수업 콘텐츠를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적합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노력을 실천해나가도록 해야 하며 무엇보다 온라인 음악 수업의 계획과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음악 교사의 역량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중등 음악교육에서의 원격수업 지도현황과 교사 인식 연구한 전해진³³⁾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행된 온라인 음악 원격수업의 현황과 이에 대한 중등 음악 교사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2020학년도 1학기 온라인 음악 수업을 진행한 중학교 음악 교사 8명을 편의 표집으로 조사하여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32) 권수미, 임은정(2020). 비대면 음악 온라인 원격 수업 실태 연구. 예술교육연구, 18(3).

33) 전해진(2021). 중등 음악교육에서의 원격수업 지도현황과 교사 인식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연구 결과 교사들은 기술적 문제로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을 중심으로 행해졌으며 자료수집은 교원학습공동체, 교사 연수, 유튜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부족한 부분은 직접 영상을 제작하여 보충하였다. 온·오프라인 수업이 격주로 행해지면서 가창과 기악은 제한적으로 수업 되었으며 감상, 창작, 생활화 수업은 플립러닝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평가는 다양한 방법과 주체가 활용되지 않았다. 교사 인식 분석 결과 교사들은 반복 시청이 가능해지면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공통된 장점으로 꼽았으며 생활화, 창작 영역이 원격수업에 가장 최적화된 수업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집중도는 대면 수업만큼 좋지 않았고 이는 낮아진 평가점수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사들은 교육청의 악기 지원, 전문적인 음악 콘텐츠와 플랫폼의 개발을 필요로 했으며 온라인 음악교육 교사 연수가 개발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원격수업 플랫폼을 활용한 중등학교 음악 수업 실태를 연구한 신민경³⁴⁾은 원격수업 플랫폼을 활용한 음악 수업 현황, 음악과 교수·학습, 제도적 지원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의 중등학교 재직 음악 교사 113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였다. 연구 결과 원격 음악 수업의 유형은 비실시간 원격수업과 실시간 원격수업의 혼용이 가장 많았으며, 음악 교사들은 자주 변동되는 학사일정 때문에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의 연계에 어려움을 겪었다. 원격수업에 가장 적합한 영역은 감상영역으로 나타났으며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은 가창 영역이었다. 가창 수업은 과반수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많은 교사가 수평평가 전체를 대면 수업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교사들의 요구로는 원격수업 가이드라인의 평가 내용과 방법의 구체화, 평가 범위의 확대, 원격수업을 위한 연수, 음악과 콘텐츠 개발을 요구했다.

교원양성기관의 음악 교과 수업에 대한 예비 교사의 온라인 수업 인식을 조

34) 신민경(2021). 원격 수업 플랫폼을 활용한 중등학교 음악 수업 실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한 류미해, 정재은³⁵⁾은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실태와 이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했는지 알아보고 온라인 수업 시 교수자와 수업 콘텐츠에 대한 예비 교원들의 인식과 온라인 수업에 대한 건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기자 충북 청주 소재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 9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개인의 안정성과 자기 주도적 학습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음악 교과목의 특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심화학습과 기술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음악적 측면에 대한 부분은 아쉬움이 많이 드러났다.

협동학습 모형을 활용한 원격수업 음악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연구한 박현진³⁶⁾은 중등학교에서 음악 교과 교육과정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선행연구와 우리나라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 및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고 협동학습을 적용한 원격수업 프로그램 및 평가안을 적절하게 구성하여 중학교 3학년의 한 학기 원격수업 프로그램과 평가안을 개발하였다. 연구 결과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에서는 소통이 가능하므로 협동학습은 의미 있는 교육적 방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모둠원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소회의실에서 주제와 관심에 따른 음악을 선택할 수 있고, 자료의 공유와 원격제어도 가능하여 서로 간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대회의실에서는 반전체가 소통하여 발표하고 평가 및 반성하는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비대면 가창 수업 방법에 대해 연구한 임지현, 민경원³⁷⁾은 비대면 수업의 어려움이 많이 드러나는 가창 수업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대학 교육의 수업 형태를 다루고 그와 함께 국내 대학 비대면 가창 수업 현황을 알아보았다. 또한 성공적인 온라인 기반 원격교육 사례로써

35) 류미해, 정재은(2021). 교원양성기관의 음악교과 수업에 대한 예비 교사의 온라인 수업 인식 조사. 음악교육공학, 0(46), 41-59.

36) 박현진(2021). "협동학습 모형을 활용한 원격수업 음악과 프로그램 개발." 음악교육공학, 0(46), 81-102.

37) 임지현, 민경원(2021). 비대면 가창 수업 방법 고찰.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15(1), 27-38.

보고되고 있는 미네르바 대학의 사례와 비대면 가창 수업 방법을 제안한 세년도어 대학의 보컬 페다고지 워크숍 사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국내 대학에서 가창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예술 관련학과 학생들과 교수자들을 인터뷰 및 설문 조사 사례연구를 하였다. 연구 결과 가창 녹화 모니터링 및 선행학습과 즉각적인 영상자료 보컬 분석 및 보충 음악 이론이라는 두 가지 구성요소를 도출할 수 있었다. 시대적 변화와 함께 효과적인 비접촉 가창 수업을 위해서는 비대면 가창 수업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새로운 비접촉 가창 수업 방법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와 시스템 구축이 더욱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고찰한 결과 국내에서가 코로나19로 인한 음악 원격수업 실태 조사, 음악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음악 교육적 연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음악과 원격수업 실태 조사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교사 인식에 대한 구체적인 담론을 다루고자 한다. 현장에서 직접 원격수업을 운영하는 현직 교사의 인식과 요구를 분석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질 높은 음악 원격수업을 제공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음악 교과 원격수업의 영역별 운영 현황과 원격수업에 대한 음악 교사들의 인식을 인터뷰를 통해 심층적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개학을 맞아 원격 음악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음악 교사를 대상으로 편의 표집 방법을 통해 14인을 선정하였다. 서울과 경기, 광주 지역의 중등 교사에게 연락하여 인터뷰에 응할 수 있다고 답한 음악 교사와 주변 교사의 도움을 받았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기본 사항은 다음의 <표Ⅲ-1>과 같다.

<표Ⅲ-1> 연구 대상의 기본적 사항

지역	교사	학교급	세부 전공	교육 경력
경기	A	고등학교	피아노	3년
경기	B	고등학교	트럼펫	22년
경기	C	중학교	이론	신규
경기	D	고등학교	성악	신규
경기	E	중학교	성악	15년
경기	F	고등학교	피아노	3년
경기	G	고등학교	성악	29년
서울	H	중학교	피아노	15년
경기	I	고등학교	바이올린	3년
광주	J	중학교	피아노	5년
광주	K	중학교	피아노	5년
광주	L	중학교	피아노	35년
경기	M	중학교	작곡	28년
경기	N	중학교	트롬본	11년

2.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준비, 실행, 정리 세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

준비 단계는 2021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기간으로 비대면 수업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를 고찰했다. 이를 토대로 인터뷰 질문지를 제작했으며 제작과 동시에 연구 대상을 모집했다. 인터뷰에 참여하겠다고 답한 교사들은 14명이었다.

실행 단계는 2021년 6월부터 2021년 8월의 기간으로 모집한 14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했다. 인터뷰는 면대면 혹은 전화로 진행했으며 대면 인터뷰는 1명, 나머지는 전화 인터뷰를 실시했다. 교사들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다양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의 순서를 상황에 맞게 바꿔가며 진행했다. 인터뷰 내용은 전부 녹음되었고 전사 작업 후 분석하였다.

정리 단계는 2021년 8월부터 2021년 10월의 기간으로 14명의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결과를 해석하여 결론을 도출했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을 진행한 음악 교사 14인을 대상으로 음악과 원격수업에 대한 지도현황 및 교사 인식을 면담해 알아보았다. 면담 진행을 위하여 연구 문제에 따른 질문 문항은 음악과 원격수업에 대한 지도현황 및 교사 인식에 대해 조사한 전해진³⁸⁾과 신민경³⁹⁾의 질문지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작성했다. 인터뷰의 핵심 질문 사항은 다음의 <표Ⅲ-2>와 같다.

<표Ⅲ-2> 인터뷰 질문사항

항목	내용
기본적 사항	-교육경력 -학교 급 -전공
원격수업 지원 및 계획	-교육부나 지역 교육청의 교육 및 연수 -학교의 지원 및 동료 교사와의 협업 -음악과 연간 계획 수립
원격수업 실행 및 평가	-원격수업 유형 -사용한 플랫폼 -음악과 교수·학습 영역별 지도 방법 -온라인 평가
원격수업 결과 및 학습자의 태도	-학생들의 참여도 및 참여 유도 방법 -학생들의 원격수업 희망 여부 -원격수업 이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변화
교사들의 인식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 -개선되어야 할 점

38) 전해진(2021). 중등 음악교육에서의 원격수업 지도현황과 교사 인식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39) 신민경(2021). 원격 수업 플랫폼을 활용한 중등학교 음악 수업 실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학원.

4.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이례적으로 시행된 온라인 개학에서 이뤄지는 음악과 원격수업 현황과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14명의 음악 교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인터뷰는 모두 녹음하여 전사하였다. 이후 전사 자료를 읽으며 인터뷰 내용을 주제별로 범주화하였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엑셀을 이용해 코딩 과정을 거쳐 질문에 대한 교사들의 답변을 비교 분석하였다. 전사된 자료는 언어코드를 바탕으로 코딩했고, 언어코드에 대한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격수업의 유형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혼합형 수업’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사용한 플랫폼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콘텐츠 중심 수업에서 사용한 플랫폼으로 구분한 후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활용한 플랫폼은 ‘ZOOM’, ‘MS 팀즈’, ‘구글 미트’로, 콘텐츠 중심 수업에 활용한 플랫폼 ‘네이버 밴드’와 ‘EBS 온라인 클래스’로 분류하였다.

셋째, 연간 수업 계획 수립은 ‘원격수업과 대면 수업 연계해서 계획’, ‘각각 따로 계획’으로 분류하였다.

넷째, 학생들의 참여도는 ‘좋아짐’, ‘비슷함’, ‘나빠짐’으로 분류하였다.

다섯째, 학생들의 음악 활동 기회는 ‘확대함’, ‘일부 확대함’, ‘제한함’으로 분류하였다.

여섯째,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떨어짐’, ‘똑같음’, ‘향상됨’으로 분류하였다.

일곱째, 원격수업 지속 의향은 ‘원함’, ‘원하지 않음’, ‘일부 원함’으로 분류하였다.

여덟째, 학교의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함’, ‘부족함’으로 분류하였고 ‘기본적인 건 해줬지만 성에 차지 않았다’는 ‘부족함’으로 분류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음악과 원격수업 운영 현황

가. 원격수업 준비 및 지원

1) 교육부 운영안

음악 교사들에게 교육부 또는 지역 교육청으로부터 원격수업을 위한 운영 지침 또는 안내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안내를 받았다고 답변한 교사는 14명 중 9명이었다. 하지만 운영 기준안은 행정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실제로 음악 수업에서 활용하기엔 교과 관련 내용이 부실하며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업 운영안은 없었고 평가, 출석 등 교사보다는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지침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수업에 도움이 되지는 않았고요. 각 학교마다 실제 상황과 여건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게 만드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B교사)

교육부에서 내려온 원격수업안은 미안하지만 학교가 먼저였어요. (생략) 교육부에서 내려온 원격 운영안을 보고 우리가 적용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학교가 수업을 해야 하니까 선생님들이 먼저 찾은 걸 교육부에서 모아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생략) 원격수업 운영안이 실제로 현장보다는 좀 늦었어요. (E교사)

2) 원격수업관련 연수 및 교육

온라인 원격수업을 위한 교육부 및 지역 교육청의 교사 교육 및 연수에 참

여했는지 묻는 질문에 H교사를 제외하고 13명의 교사가 연수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연수를 받지 않은 H교사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따로 연수를 받지는 않았다고 했다. 연수 및 교육은 대부분 ZOOM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내용 또는 동영상 제작 관련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음악 교과 관련 연수를 받은 교사는 2명 뿐이었다. 음악 교과 관련 연수의 내용으로는 원활한 음악 원격수업에 관한 사례에 관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초창기에는 프로그램 관련 연수를 받았었죠. 줌이나 구글 미트 활용 방법이라던지 아니면 동영상 제작하는 어플 사용법에 대한 내용도 있었어요. 음악 교과 관련 연수는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F교사)

어떻게 하면 이제 음악을 원격수업으로 잘할 수 있는지 경험담 공유하면서 아이들이 더 잘 참여하는 방법 이런것들 위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음악 수업에 바로 적용했던 것은 지휘에 관한 것도 있었고,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면 좋은 자료가 있다던가 등등 다양하게 받았습시다. (L교사)

일부 교사들이 음악 교과 관련 연수를 받았으나 대다수의 음악 교사들은 실제 음악 교과 관련 연수 기회가 낮은 것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연수에 대해 질문했을 때 음악 콘텐츠 관련 연수에 대한 요청이 많았고 원격수업에서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다고 답한 교사도 있었다.

음악 교과의 원격수업을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는 공문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는 음악 프로그램, 콘텐츠가 개발된다거나 음악 수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자료나 아이디어에 대한 교육이 있다면 바로

들으러 갔을 텐데 말이에요. (I교사)

3) 학교의 지원 및 동료 교사와의 협업

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해 학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어떠했는지 묻는 질문에 장비구입, 매체 확보 등의 과정에서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느낀 교사는 8명이었다. 부족하다고 느낀 교사는 대체로 장비 구입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었으며 필요한 장비는 개인 사비로 구매하여 이용 중이라고 답변했다.

교육정보부 예산과 음악과 예산으로 온라인 교육에 대한 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구입, 마이크, 태블릿 PC 등 필요한 물품을 신속하게 원만하게 지원받아서 원격수업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H교사)

학교에서 지원받은 것은 사실 교실에 노트북 설치해준 것 말고는 없었거든요. 음악으로 원격수업을 하려면 사실 되게 필요한 게 많을 텐데 재정적 지원은 전혀 없었고 그냥 노트북만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라든지 추가로 필요한 물품은 개인 사비로 구매해서 이용 중이에요. (F교사)

동료와의 협업을 묻는 질문에 11명의 교사가 동료 교사와 협업이 있다고 답변했다. 급작스럽게 원격수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동료 교사와의 협업은 필수적이었으며 컴퓨터 활용 능력이 부족한 교사가 능숙한 교사에게 교육을 받고, 수업 자료 또는 원격수업에서 효과적인 플랫폼 등을 공유하고 있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동료 교사와의 협업을 잘했어요.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거나 자료 제작이 능숙하지 못하다면 혼자 원격수업을 준비하는 건 진짜 너무 어렵거든요. 습득이 빠른 선생님들이 먼저 배워와서 느린 선생님들 알

려드리고 이런 식으로 협업을 해서 원격수업 잘 해쳐왔죠. (E교사)

4) 음악과 연간계획 수립

2021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이 유동적으로 병행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음악과 교과 운영을 구현하기 위해 연간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였는지 물었다. 14명 중 8명의 교사가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을 연계하지 않고 각각 구분하여 계획하였고, 6명의 교사는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을 연계하여 연간계획을 수립하였다.

원격이 어울리는, 원격이 가능한 수업이 있고, 대면에서만 가능한 활동이 있는 수업이 있잖아요. 그걸 적절히 섞어요. 애들이 나왔을 때 대면 수업 때 할 수 있는 걸 하고, 원격수업에 들어가면 또 원격에서 바로 가능한 수업들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M교사)

원격수업으로는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받는 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한 주제를 원격수업, 대면 수업 2차시로 나눠서 수업을 계획했어요. 먼저 원격수업으로 진도를 나가고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 보충하거나 활동을 하는건 대면 수업때 했던것 같아요. (F교사)

애초에 원격수업이랑 대면 수업을 병행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원격수업을 진행해야 해도 연장해서 무조건 수업을 이어갈 수 있게끔 수업계획을 세웠어요. (C교사)

나. 수업 실행 및 평가

1) 사용한 원격수업 유형

교육부에서는 원격수업의 유형을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교사들에게 사용하는 원격수업의 유형을 물었다. 이와 관련하여 14명 중 10명의 교사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 외에는 혼합형 수업과 콘텐츠 활용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도 있었다. 계보경⁴⁰의 COVID-19에 따른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경험 및 인식 분석 연구에 따르면 작년에 교과수업 시 활용하는 주된 원격수업의 형태는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이었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활용한 교사는 14.8%에 불과했는데 2021년에 들어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도입한 교사가 많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작년에는 콘텐츠 활용 및 과제 수행으로 진행했었는데. 그 유형으로는 음악과 연간계획과 평가 계획에 따른 수업을 온전히 수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2번째로 쌍방향 실시간을 도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B교사)

2021년이 되면서 코로나 장기화가 되자 학교에서 정책적으로 쌍방향 실시간 수업을 권장했어요. 그래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C교사)

학교 정책으로 인해서 실시간 쌍방향을 진행하긴 했는데 학생들이 정말 집중을 못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게끔 영상을 재밌고 화려하게 만드는 게 낫겠다 싶어서 콘텐츠 활용 수업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D교사)

다음으로는 각 유형별 장점을 물었을 때 실시간 쌍방향을 진행한 교사들은 주로 다른 유형에 비해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한 점을 꼽았다. 다른 의견으로는 학생들과의 소통이 가능해지고, 학교 수업 시간대로 생활하게 된다는 의

40) 계보경(2020). COVID-19에 따른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경험 및 인식 분석 -기초 통계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견이 있었다.

실시간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의 반응을 즉각 즉각 확인해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D교사)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수업 내용이 이해되었는지, 학생들이 어려워하지 않는지 등등을 파악하며 수업을 진행 할 수 있어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H교사)

콘텐츠 활용 유형을 이용한 교사들은 시간 절약과 진도가 밀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점이 장점이라고 답변하였다.

예를 들어 1학년을 8반 나가는 선생님이 계시면 하나의 수업 영상을 만들어 놓으면 7시간이 세이브가 되는 거니깐 시간이 절약된다고 볼 수 있죠. (D교사)

음악에서 진도라고 하기가 참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영상 안에 다 담아서 보여줄 수가 있으니깐 진도가 밀리지 않고 쪽쪽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K교사)

각 유형별 단점을 물었을 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진행한 교사들은 학생들이 수업을 힘들어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른 의견으로는 교사가 모든 사항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반복 학습, 수준별 학습이 어렵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애들이 집중도 못 하고 딴짓하고 엄청나게 힘들어해요. 사실 맨 처음에 원격수업 시작할 때 제가 한번 직접 해봤거든요.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1

교시부터 6교시까지 학생 입장에서 들어봤어요. 이걸 진짜 할 짓이 아니고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생략)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 수업도 포인트 위주로 단축을 많이 해서 끝내고 다음 수업을 위해 환기를 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교사)

원격으로 진행하면 인터넷 연결 상황 등 예상치 못한 변수도 많이 생기고 줌 화면이 시시각각 바뀌고 정신없어서 교사가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통제하기가 힘들어요. (N교사)

콘텐츠 활용 수업을 진행한 교사들은 단점으로 실제 참여도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영상 제작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의견이 있었다.

단점 같은 경우에 애들이 이걸 진짜로 참여하고 있는 건지, 필기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확인을 못하는 거죠. (K교사)

EBS 온라인 클래스룸에 음악 교과에 대한 자료와 수업이 없어서 직접 찾아 만들고 제작을 했는데 그 과정이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J교사)

2) 플랫폼

원격수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에 대해 질문했다. 실시간 쌍방향 유형으로 수업 중인 음악 교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은 ZOOM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MS팀즈, 구글 미트를 사용 중이었다. 콘텐츠 중심 유형으로 수업한 음악 교사가 사용한 플랫폼으로는 EBS 온라인 클래스와 네이버 밴드가 있었다. 사용하는 플랫폼에 추가됐으면 하는 기능에 대해 물었을 때 ZOOM을 이용하는 교사들은 새로운 기능의 추가보다는 기존 기능의 향상을 요구했다.

음악과 특성상 기능이 추가된다기보단 성능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화면이 갑자기 끊긴다든지, 음향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곤란할 때가 많았거든요. (B교사)

I교사는 수업 시간에는 교사는 온전히 원격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ZOOM에 수업 시간을 알려주는 알람 기능, 얼굴 인식 기능을 통해 자동으로 출석 체크해주는 기능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원격수업하면서 출석체크하는게 진짜 힘들어졌거든요. 어떤 반은 한 시간 내내 출석만 부른 적도 있어요. 애들이 지각하면 또 그거 체크하느라 또 밀리게 되고. 줌에 학교 종처럼 알람기능이 있어서 애들이 알아서 딱딱 잘 들어왔음 좋겠고요. 또 애들 들어와서 화면 켜고 있으면 자동으로 인식해서 출석체크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화면 꺼놓으면 아예 출석 인정을 해주지 않아서 애들이 계속 카메라를 켜고 있을 수 있게요. (I교사)

한편 MS팀즈를 사용하는 교사들은 호스트와 게스트에게 똑같은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 개설자에게만 권한이 확대될 것을 요구했다.

MS팀즈는 개설자 말고 학생들도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요. (생략) 제가 수업하고 있을 때 학생들이 저를 음소거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가끔씩 있거든요. 그래서 방을 개설한 사람만 완전히 다 조작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C교사)

3) 영역별 지도 현황

본 연구에서 음악과 원격수업의 지도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교육 영역인 표현, 감상, 생활화로 나누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중 표현 영역의 하위 영역인 ‘노래 부르기’, ‘악기로 연주하기’, ‘만들

기'는 각각 가창, 기악, 창작 영역으로 나누어 총 5개의 영역으로 분석하였다.

가) 가창

가창 수업은 14명 중 9명의 교사가 진행하였으며 그중 6명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가창 영역을 지도하였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가창 영역은 일반적으로 제재곡에 대한 이론 설명 후 교사가 먼저 선창하고 학생들이 따라 부르며 익히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학교 왔을 때, 일단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가창을 아예 못 하게 했으니 간요. 학교에서 다른 영역 수업을 하니깐 원격수업으로는 가창 수업만 주구장창 했던 것 같아요. (생략) 예를 들어 교가를 배울 때면 먼저 학교 이념, 상징 같은걸 먼저 설명해주고, 이태리 가곡 같은 경우는 디션을 하나하나 자세히 따라 하게 한다든지 이런 걸 먼저 수업한 다음에 노래를 한 줄씩 따라 부르게 하는 식으로 수업했어요. (E교사)

비말 감염의 위험으로 인해 학교에서 노래 부르는 활동은 제한되었기 때문에 가창 영역을 대면 수업에서는 할 수 없었고, 원격수업에서만 이루어져야 했다. 하지만 기술상의 문제로 음성 타이밍이 맞지 않아 학생들은 음소거를 한 채 노래를 불러야 했고, 제한된 시간 안에 교사가 한 명씩 개별적으로 지도해주기엔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였다. 따라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가창 활동을 직접 확인하고 개인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이게 타이밍도 안 맞고 인터벌이 생기다 보니깐 소리를 다 켜놓고 부르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음소거를 해놓고 불러보라고 하는데, 애들이 진짜 부르는지 부르는 척만 하는지 알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 명씩 불러보라고 하면 절대 안 부르거든요. 애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하는 것도 힘들고 정말 해야 하니깐 하긴 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B교사)

C교사는 원격수업만으로는 완전히 익히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학생들에게 반주 음원을 직접 제작하여 배포하고 학생들이 가정에서 따로 연습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가창 수행평가를 해야 하는데 원격수업만으로는 온전히 노래를 익혔다고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반주 음원을 만들어서 애들한테 돌렸어요. 그럼 이제 그 음원에 맞춰서 연습을 해오면 피드백을 해주는 식으로 했습니다. (C교사)

콘텐츠 중심 수업으로 진행한 가창 수업은 교사가 선창하면 학생들이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하여 각 플랫폼에 올리면 학생들이 시청 후 가창 영상을 촬영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제 먼저 PPT를 제작해서 이론 설명해주고, 노래 한번 들어보고, 제가 한 소절씩 부른 다음에 애들이 따라 불러볼 수 있게 하고, 게이름으로도 한번 불러볼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준 것 같아요. 이제 애들이 그거 보고 연습해서 셀프 비디오 찍어서 보내라고 하죠. (J교사)

나) 기악

기악 수업은 14명 중 9명이 진행하였고 주로 리코더 수업과 어플을 활용한 칼림바 수업이 진행되었다. 기악 원격수업은 학생들이 악기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쉽게 구비가 가능한 악기 위주로 수업 주제를 선정해야 했다. 학생들의 악기 준비로 인해 수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진 않았냐는 질문에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음악 수업에 필요한 악기를 잘 준비해주었다고 답변했고, 애초에 학생들의 악기 준비가 필요하지 않게끔 장구 장단을 책상 치기로

대체하여 진행하거나 집에서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컵타 연주를 수업을 진행한 교사들도 있었다.

리코더는 초등학교 때 했었으니깐 집에 하나씩은 다 있어서 원격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준비해 놓기엔 제일 좋더라고요. (M교사)

리코더 수업은 비말 감염의 위험으로 인해 원격수업과 대면 수업의 연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악기의 구조, 음색, 운지법 등 이론적인 내용을 먼저 전달한 후에 교사의 시범 연주 후 학생들이 연주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악기 구조라던가 이 악기로 어떤 걸 연주할 수 있나, 연주 주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짝 설명한 후에 직접 연주해보는 활동을 한 것 같아요. 원격수업 당시에는 애들이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힘들어서 수업 끝나고 연주 영상을 제출하게 하기도 했어요. (A교사)

칼림바 수업은 어플을 통해 제공되고 있어서 원격수업과 대면 수업에 연계가 용이했다. H교사는 원격수업에서 휴대폰에 칼림바 어플을 설치하여 집에서도 연습할 수 있게 지도하고, 학교 예산으로 악기를 일괄 구매하여 대면 수업 때 학생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며 직접 연주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칼림바는 원격수업으로도 진행하고 대면 수업 때도 했습니다. 학교 예산으로 구비를 해놓고 학생들이 사용 전과 후에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면서 사용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칼림바는 저렴한 악기에 속하기 때문에 개인 악기를 준비해서 가져온 경우도 있더라고요. 칼림바의 경우 원격수업에서는 휴대폰에 칼림바 어플을 설치하여 집에서도 연습할 수 있게 했는데 학생들이 가장 흥미있어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과제 제출률도 좋

왔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연습했는데 수행평가 준비를 열심히 했더라고요.
(H교사)

기악 수업을 진행한 교사들은 친구들과 함께 악기 연주 해 볼 기회가 없다는 점이 가장 아쉬웠으며 화면 지연 현상으로 인해 자세한 내용 전달이 어려웠다고 답변했다.

애들이 합주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집에서만 혼자 하려니깐 답답해하고 더 안 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본인 연주랑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고 이러면서 실력이 더 향상되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본인이 하는 게 다 맞는 거 같으니까 틀린 줄도 모르고 계속 틀리게 연습하고 그런 부분이 속상하죠 (K교사)

다) 창작

창작 영역은 14명의 교사 중 4명이 진행하였다. 창작 영역은 창작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음악 이론에 대한 수업이 원격수업으로 진행되었고 대면 수업시 배운 음악 이론을 바탕으로 창작 활동물을 만드는 방식으로 연계되었다.

창작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기본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원격수업에서 자세하게 다뤘던 것 같아요. 원격수업으로 이론을 진행하니깐 더디게 들어갈 수 있어서 좋았어요. 원격에서는 이론을 배운 후 학교에 나왔을 때 직접 한도막 형식의 악곡 만드는 활동을 했습니다. (N교사)

창작 영역을 지도하면서 힘들었던 점을 묻는 질문에 원격수업으로 이론 수

업을 할 때 학생들의 이해도를 파악하기 힘들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 피드백하기 힘들다고 답변하였다.

창작 수업을 진행할 때 학생들이 이해 못한 부분에 대해서 원격수업으로 피드백하기 힘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한 명 씩 과제를 보내면 피드백을 해줬는데 생각보다 계이름, 악보 보는 법 등 기초적인 음악 이론을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 학생들은 아예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H교사)

그 밖에 A교사는 창작 수업에 구글 크롬 뮤직 랩의 송메이커를 이용하였다. 송메이커는 기존의 엄격한 규칙과 이론을 벗어나 학생들이 사이트에 접속만 하면 쉽게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창작수업과 차이점이 있었다. 수업은 먼저 학생들에게 사용법에 대해 안내한 후 학생이 직접 송메이커를 이용해 창작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학생들에게 먼저 크롬 뮤직 랩의 기본적인 사용법에 설명해주고, 튜토리얼식으로 비행기같이 간단한 동요를 따라서 만들어보게 해서 완전히 기능을 숙지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간단한 선율을 만들어보게 했죠. 그냥 네모 칸을 마우스로 짚기만 하면 음악이 만들어지니깐 아이들이 재밌게 잘 했던 것 같아요. 참여율도 높았고요. (A교사)

라) 감상

감상 영역은 인터뷰에 응한 14명의 교사 모두가 진행한 수업이었다. 음악 교사들은 감상 수업이 기존의 수업과 가장 비슷하게 진행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고 답했다. 학생들과 원격으로 만나는 것 이외에 달라진 점이 별로 없었으며 감상곡에 대한 시대적 배경, 작곡가의 생애 등 음악사와 연계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교사들은 원격수업 후 배운 내용을 학생들이 정리하여 직접 설명

하도록 하였고, 제재곡에 대한 감상평이나 느낀 점을 과제로 제출하게 하였다.

시대적 배경, 음악적 특징을 포함해서 전 시대를 다 감상했어요. ppt나 자료화면을 통해 충분히 설명해주고, 감상 후에는 학생들의 생각을 dm으로 받아서 애들이 잘 들었는지 확인하고 질문 같은 것도 피드백할 수 있었어요. (I교사)

교사들은 감상 영역은 주로 강의형 형태로 진행되어 교사 입장에서 원격수업을 하기에 가장 수월하나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전달식 수업으로는 집중과 참여를 요구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하였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최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감상 자료를 찾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감상 수업은 비교적 원격이나 등교 수업에서 비슷하게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전달식 수업만 되더라고요. 특히 서양 음악사에 들어가면 애들이 집중을 아예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여줄 때 아예 화려하고 다채로운 영상을 찾아서 보여주려고 제일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 (D교사)

마) 생활화

생활화 영역은 일상생활에서 음악을 활용하고 즐기는 태도를 가지기 위해 행사 참여, 문화유산 조사 등을 통해 음악 문화를 애호하는 마음과 태도를 기르는 영역이다.⁴¹⁾ 주로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음악 산업에 대해 조사하는 활동이 진행⁴²⁾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및 대면 활동에 제약이 있어 생활화 영역을 수업한 교사는 아무도 없었다.

41) 교육부(2015). 음악과 교육과정. p.5.

42) 교육부(2015). 음악과 교육과정. p.16.

생활화 영역은 따로 하지는 않았어요. 다른 영역을 나가기도 시간이 부족했거든요. (K교사)

4) 온라인 평가

온라인 평가의 진행 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에 14명 중 7명이 온라인 평가를 진행했다고 하였다. 2015 개정 음악 교육과정은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강화한다고 명시하였다. 과정 중심 평가를 지향함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대면 평가를 진행해야 하지만 교사들은 원격수업 때마다 학생들의 음악 활동을 촬영한 영상 또는 음악 감상 후 느낀 점, 창작활동의 결과물 등을 제출하게 하여 작은 부분을 과정 평가로 진행하였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평가 방법은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의 수업 참여 여부와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학생 스스로도 자신의 학업 성취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제 원격수업을 하면 애들이 이해하고 있는건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니깐 수업 때 했던 활동을 영상이나 기록으로 남겨서 제출하게 했어요. 평가에 들어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고 애들도 수업에 참여하긴 하니까요. 이제 대면 평가가 원칙이긴 해서 대부분 학교에 오면 진행하긴 했지만 과정 평가 중에 작은 부분을 온라인으로 평가했던 것 같아요. (K교사)

또한 코로나 감염 위험으로 대면으로 평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도 온라인 평가를 진행한 적이 있었다. 주로 비말 감염의 위험이 따르는 가창이나 리코더 같은 관악기 종류의 기악 영역을 온라인으로 평가했다. 학생들이 노래 부르거나 악기 연주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영상을 제출하면 영상을 보고 평가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이때 학생들은 공개평가란 부담을 벗어났으며, 정

해진 기한까지 여러 번 촬영하면서 최선의 상태의 영상을 제출할 수 있고 교사는 학생들의 화면을 반복해서 보면서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었다.

가창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 와서도 마스크를 내리고 노래를 못하니까요. 그냥 원격수업일 때 너희들이 비디오를 찍어서 선생님한테 메일로 제출하자 이런 식으로 평가했어요. (생략) 애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걸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그냥 집에서 혼자 해서 내버리면 되는 거니깐 부담 없이 참여했던 것 같아요. (F교사)

애들은 이제 몇 번이고 다시 찍으면서 제일 잘한 거 보내면 되니깐 평가라는 부담감이 줄어든 것 같아요. 저희는 영상자료가 남아있으니깐 몇 번이고 다시 보면서 정확한 채점을 할 수 있게 되고 결과에 이의제기해도 증거를 내밀면 되니깐 그런 점이 좋았습니다. (J교사)

하지만 온라인으로 평가를 진행했을 때 대리시험, 컨닝 등 부정행위의 우려가 있다는 점과 가정환경에 따라 결과물이 날 수가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한계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음악 이론 할 때 옆에서 자꾸 부모님이 알려주는 소리가 들려오는 애들이 있고, 칼림바 같은 경우도 손이 보이게 해서 보여달라고 하지만 옆에서 어머니 계시는 거 다 아는데 그래서 이게 100% 본인이 하는지 확인됐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믿는 거죠 뭐. (K교사)

학생마다 집안의 환경이 다르잖아요. 울림이 좋게 들리는 공간에서 촬영하는 애들도 있고 생목으로 들리게 하는 애들도 있고. 그런 환경에 따라 결과물에 차이가 나기도 하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없다고 할 순 없어요. (G교사)

다. 원격수업 결과 및 학습자의 태도

대면수업과 비교하여 학생들의 참여도를 묻는 질문에 14명의 교사 중 8명이 원격수업 후 학생들의 참여도가 더 낮아졌다고 답변했다.

대면 수업에서는 질문도 하고 같이 호응도 해줬는데 원격수업에서는 질문 하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학생들 눈치를 보는 것 같구요. (H교사)

원격수업하면 이제 아무래도 참여도가 떨어지죠. 또 음악 같은 경우는 애들이 필수로 공부하려고 하는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밑에서 다른 과목 숙제를 하던지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참여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G교사)

대면수업과 참여도가 비슷하다고 답변한 교사는 6명으로 학교에서도 열심히 참여한 학생은 원격수업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아닌 애들은 똑같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실 수업과 분위기가 비슷했다고 답했고, 오히려 교실에서 소극적인 학생이 채팅을 통해 적극적으로 원격수업에 임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하였다.

어차피 원격이나 대면이나 학교 정규 과정이기 때문에 애들이 당연히 해야 할 수업으로 생각하거든요. 조금씩 늦게 들어오는 애들도 있지만 거의 대면수업과 비슷하게 똑같이 들어와서 수업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교실 수업에서 참여도가 높은 학생은 원격수업도 열심히 듣기 때문에 참여도는 비슷했어요. (L교사)

원격수업에서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에 대해 질문했을 때 대부분의 교사는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며 댓글이나 채팅으로 호응하

게 하였고, 수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도록 원격수업에서 수업한 내용들로 퀴즈와 과제를 부여하는 방법을 사용 중이었다.

참여 유도는 이름을 불러주죠. “누구야 뭐하니. 누구야 어디 갔니” 막 이런 식으로 불러서 대답하게 하고, 수업 중에 한 명씩 랜덤으로 불러서 질문에 대답하게 하는 식으로 참여 유도를 했던 것 같아요. (M교사)

저는 수업마다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과제를 내줬어요. 수업 잘 들으면 일찍 끝내준다고 꼬셔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했던 것 같아요. (A교사)

수업 도입 부분에 아이스 브레이킹을 함으로써 학생들과 소통하며 자연스럽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사도 있었다.

수업 시작 전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악 틀어주고 최대한 편안하게 근황 토크도 좀 하고.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면서 일상적인 대화로 수업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N교사)

E교사는 처음부터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원격수업에 임하는 태도와 예절을 사전 교육했다고 하였다.

제가 올해 1학년 부장을 하게 되면서 고민하다가 처음부터 좀 습관을 잘 들여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1학년 담임 선생님들 다 모아놓고 3월 초부터 원격수업, 쌍방향 수업 예절부터 가르쳐서 카메라 앞에 상체가 다 나오게 하고 안 나오면 다 결석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하도록 하게 했죠. 물론 결석 처리는 따로 룰이 있지만요. 그랬더니 지금 1학년 애들 너무 분위기 좋아요. 학부모님들도 좋아하시고, 선생님들도 수업하기 너무 편해졌어요. (E교사)

원격수업에 참여를 거부하고 비협조적인 학생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부분의 교사가 참여를 독려하다가 결국에는 제외하거나 결과처리, 태도점수를 감점한다고 답했다. 또한 수업에 흥미가 없는 학생에게 참여를 계속 독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다행히 그런 친구가 많지는 않았습니니다. 한 학급에 1명 정도, 어느 정도 참여를 요구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제외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는 출결 처리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라면 결과 처리했고요. 등교 수업에도 마찬가지로 아닐까요? 수업을 듣지 않고 엎드려 자는 친구들이 있으면 어느 정도 깨워 보지만 그 학생만 신경 쓰다 보면 다른 학생들의 수업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수업의 흐름 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B교사)

원래 수업에 큰 흥미가 없는 학습자의 경우 교실에서는 더 쉬운 과제를 주거나 해서 계속 참여를 독려하기가 쉬운데, 비대면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죠. 수업을 제가 전적으로 끌고 가는 상황에서 다른 애들이 계속 기다려야 하니까요. (A교사)

학생들이 음악 교과를 원격수업으로 계속 진행하기를 희망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반대하고 대면 수업을 희망한다고 답변했다.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찬성한다고 답변한 경우는 교과의 특성 때문이 아니라 학생들이 등교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이었다.

학생들은 원격수업을 하고 싶지 않아 해요. 제가 해봐도 너무 재미없어요. 특히 음미체 이런 과목들은 실기 활동이 중요한데 온라인으로 강의만 듣고 있으니 더 심한 것 같아요. (J교사)

학생들은 음악 수업은 음악실에서 등교 수업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다양

한 악기 연주와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게 음악실 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가끔 음악실로 이동하는데 학생들이 음악실 수업을 훨씬 선호합니다. (H교사)

원격수업 이후 학생들의 음악 성취 수준에 대해 질문했을 때 14명 중 13명의 교사가 원격수업 이후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은 떨어졌다고 답변했다.

원래 잘하던 학생은 성취도가 똑같이 높게 나왔지만 중간 이하의 성취도를 가지고 있던 학생들이 아예 포기를 해버린 경우가 더러 있어서 평균적으로 학업 성취 수준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G교사)

차이가 없다고 답변한 교사는 L교사 뿐이었다. L교사는 원격수업과 대면 수업을 연계해서 수업하였기 때문에 성취 수준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느꼈다.

원격수업에서 설명하고 부족하거나 이해 못한 부분을 대면 수업에서 확인하고 그 부분을 집중해서 다시 한번 수업하니깐 성취도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전보다 좀 더딘 부분은 있겠지만요. (L교사)

2. 원격수업에 대한 음악 교사들의 인식

가. 긍정적인 영향

원격수업의 긍정적인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음악 교사들은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음악 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교사들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답했다. 더 나아가 학교 수업의 다양한 형태를 제시하고 제2의 코로나19사태를 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답변하였다.

비말 감염 때문에 가창 같은 건 학교에서 전혀 할 수가 없었지만 원격수업을 통해서 힘들긴 하지만 가창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런 팬데믹 상황을 처음 겪기는 하지만 앞으로 또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이번 원격수업 경험을 통해 앞으로는 항상 준비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G교사)

이거는 이제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 같아요. 이전에는 ‘꼭 학교에 와서 수업을 받아야 한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에서 이제 꼭 학교에 안 나와도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어찌 보면 미래의 수업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원격수업을 통해서 옛날엔 관서만 사용하는 선생님들이 많으셨는데 이제는 다들 어느 정도 이상으로 컴퓨터를 만지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됐으니깐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어요. (D교사)

또한 원격수업을 녹화함으로 반복 학습이 가능해지고,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제 교육과정 자체가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강조하잖아요.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영상을 녹음, 녹화해서 모르는 걸 다시 보면서 반복 학습 할 수도 있는 거고 수업 진행을 조절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건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C교사)

다른 의견으로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수업할 수 있고, 대면 수업에서 소극적이었던 학생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장소가 주는 편안함이 있는 거 같아요. 학생들이 집에서 수업을 들으니깐 편한가봐요. 그래서 그런지 학교에서는 조용하던 친구들도 채팅과 댓글로 대답도 잘해주더라고요. (I교사)

나. 부정적인 영향

원격수업의 부정적인 측면을 묻는 질문에 제일 먼저 음악 교사들은 대부분의 음악 교사들은 학생들이 원격수업 듣는 것을 힘들어하고 대면 수업보다 학습 격차가 심해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음악뿐만 아니라 모든 수업이 원격수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서 있다 보니 집중력이 떨어지며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최대한 밝은 모습으로 수업을 준비하려고 해도 학생들이 힘들고 지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등교하고 싶다는 학생들을 보면 역시 대면 수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H교사)

안 하는 애들은 정말 더 안 하더라고요. 아예 수업을 다 포기한 느낌이에요. 학교에 등교할 때는 제가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다가 발견하고 따로 지도

하면 그나마라도 했는데, 원격수업에선 그런 게 없으니깐 모르는 부분은 모르는 채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미 초등학교 때 음악 학원을 다닌 아이들이랑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아마 아이들의 실력차이는 점점 더 심해질거예요.
(N교사)

또한 실기 위주인 음악 교과의 원격수업은 학생들의 음악 활동의 기회를 제한한다고 답했다. 실기 수업의 진행이 어렵고, 개별적으로 피드백해주기도 힘들어서 학생들이 원격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결국 대면 수업 때 원격수업 내용을 똑같이 반복해야 하고 교사들의 업무 또한 증가한다고 호소했다.

일단 애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진도를 나가긴 하는데 그때 알아듣는 애들이 별로 없으면 다음 대면 수업 때 원격 때 했던 얘기를 또다시 해야 하는 거죠. 가창이나 기악 같은 실기영역도 그래요.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해주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수업 시작하고 출석 부르는 것도 시간이 엄청나게 잡아먹는데 한정된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해야 하니깐 그런 부분이 힘든 것 같아요. (F교사)

다른 의견으로는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다 보니 교우관계 등 사회생활을 배울 기회가 제한된다고 답한 교사도 있었다.

학교는 학생들이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생활하는 하나의 작은 사회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배울 기회가 줄어들다 못해 차단하는 것 같아요. 쌍방향 수업을 하면 무조건 음소거 하고 있어야 하고, 학교에 온다고 해도 여러 명아서 뭉쳐 다니기는 커녕 대화도 제대로 못 하게 하니까요. (G교사)

다. 개선사항

다음으로 부정적인 측면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점에 대해 물었다. 대부분의 교사가 학생들이 원격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걸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음악 교사가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을 지양하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재미있는 수업을 구성해야 한다고 답했다.

어쨌든 수업을 구성하는 건 교사의 몫이니까요. 혼자만의 강의식으로 수업을 할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발문을 한다든지 반응을 이끌어내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꾸며가야 하지 않을까요? 교육부에서도 다양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개선하고 확립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자료도 제공해 주고요. (J교사)

준비되지 않은 채 원격수업을 하게 된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해지기 전까지는 가정에서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실 교사는 한 명이 여러 명을 다루는 건데 가정 내에서는 자기 애들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가정 내에서 보호자가 애들이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해주는 예를 들어서 원격수업을 위한 장비 구비라던가 수업 준비물 챙기기, 제시간에 수업 출석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가정에서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D교사)

다른 의견으로는 온종일 모든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하는 것보다 오전, 오후로 나눠서 등교하는 방법,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다.

하루종일 모든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전에 등교 수업을 하면 오후에는 원격수업을 한다거나, 과제 제시형이나 콘텐츠 활용 수업도

적절히 같이 진행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교사)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음악과 원격수업 운영 현황이다.

첫째,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은 원활한 원격수업의 운영을 위해 안내 및 연수를 시행하였지만 대부분 행정적인 지침에 관한 내용, 원격수업 관련 플랫폼과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었고, 음악 수업을 위한 내용은 상당히 부족하였다. 원격수업을 위한 학교의 지원은 각 학교마다 편차가 있었으며 기자재 구입에 부족함을 느낀 교사는 개인 사비를 들여 구비하고 있었다. 또한 교사들은 급작스럽게 시행한 원격수업을 학교 동료 교사와의 협업을 통해 단기간에 대비할 수 있었고 원만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둘째,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확대, 권장되면서 대부분의 교사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시행중이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즉각적인 수업의 피드백이 가능하고, 학생들과 소통이 용이하며, 학교 수업 시간대로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학생들이 원격수업으로 매시간 화면 앞에 앉아 집중하기 힘들어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또 교사들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이용하는 플랫폼으로는 주로 ZOOM을 사용 중이고 그 외에도 MS팀즈, 구글 미트를 활용하는 교사도 있었다. 교사들은 사용되는 플랫폼에 화면 끊김, 음성 지연 현상 등 기존 기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셋째, 영역별 지도 현황은 감상 수업을 가장 많이 진행 중이었고 가창, 기악의 실기 영역, 창작 영역 순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생활화 영역을 진행하는 교사는 없었다. 감상 영역은 강의식 수업으로 대면수업과 별 차이가 없어 교사들이 원격수업으로 채택하기에 부담이 없었으나 학생들의 집중 및 흥미가 떨어지기 쉬웠다. 보통 감상 영역은 음악사와 연계하여 수업했으며 감상곡에 대한 설명이나 느낀 점을 과제로 부여하여 학습 확인을 하였다. 가창, 기악의

실기영역은 비말 감염의 위험으로 원격수업으로 진행하였으며 제재곡을 교사가 선창 혹은 시범을 보이면 학생들이 따라서 해보는 식으로 전개되었다. 음성 지연 현상으로 인해 합창과 합주는 어려웠으며 원격수업으로는 개별지도가 힘든 한계점이 있었다. 창작 영역은 보통 창작에 필요한 기본 음악이론을 원격수업으로 배운 뒤 대면 수업에서 악곡을 직접 만들어보는 활동으로 연계해 진행하였다.

넷째, 평가는 원칙상으로는 대면 평가를 진행해야 하지만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대면 평가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일 때에만 실기 영상을 제출하는 온라인 평가를 진행했었고, 수업 후 과제를 제출하게 하여 작은 부분을 과정 평가로 진행하였다. 온라인 평가는 따라 학생들은 공개평가의 부담감에서 벗어나 최선의 상태의 영상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교사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봄으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해졌다는 장점이 있으나 대리 시험 및 컨닝의 우려가 있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다섯째, 학생들의 참여도는 대면 수업에 비해 떨어진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이름을 불러주는 등 소통을 통하여 참여를 독려하거나 수업마다 필수적인 과제를 부여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었다. 그룹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거부하는 학생은 수업에서 제외하거나 출석, 태도점수를 감점하였다.

여섯째, 원격수업 이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떨어졌으며 학생들은 등교하여 대면 수업 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원격수업에 대한 음악 교사들의 인식이다.

첫째, 교사들은 원격수업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음악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학교 수업의 다양한 형태를 제시하며 교사들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제2의 코로나 사태를 대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학생들이 자기주도학습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수업이 가능해지며 채팅이라는 새로운 소통 방법을 통해 그동안 소극적인 학생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였다는 점을 말하였다.

둘째, 원격수업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학생들이 원격으로 수업 듣는 것을 힘들어하고, 학습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실기 위주의 음악 교과 수업은 학생들의 음악 활동의 기회를 제한했으며 개별적 피드백 또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학생들의 사회생활을 배울 기회가 줄어들었다고 언급한 교사도 있었다.

셋째, 더 나은 원격수업을 위해서 학생들이 원격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더 많은 자료와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자기주도학습이 스스로 가능해지기 전까지 학습 환경 구축을 위해 가정의 도움이 필요하며 하루 온종일 모든 수업을 원격 수업으로 진행하기보다 오전, 오후로 나눠서 등교하는 방법과 교사가 학생 개별적으로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었다.

첫째,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은 음악 교사들에게 운영 지침에 관한 안내와 연수는 제공하고 있으나, 음악 교과에 관한 내용은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 교사들의 효과적인 원격수업을 위하여 활동 영역별 온라인 수업 자료 및 콘텐츠를 개발하고 음악 교과의 특성을 적용한 시스템과 매뉴얼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실시간 쌍방향 수업 시 화면 끊김 및 음성 지연의 문제로 인해 합창, 합주 등 함께 음악을 공유할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원활한 온라인 음악 실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실시간 쌍방향 플랫폼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한 가정에서의 수업 환경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충분한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가정에서도 원활한 원격수업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대하고 학생의 보호자들도 가정에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하다.

넷째, 학생들이 대면 수업보다 원격수업에서 집중하기 힘들어하고 원격수업 이전보다 학업성취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하루 온종일 원격수업을 진행하기보다는 오전, 오후로 나눠서 원격수업을 절반만 진행하는 등 다양한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에 대해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현직 음악 교사 14명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의 더 많은 인원의 교사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더욱 일반적인 음악 교사들의 원격수업 현황과 인식을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음악과 원격수업에 대해 교사들의 인터뷰만을 통해 조사

되었고, 실제 원격수업 현장을 직접 볼 수는 없었다. 따라서 인터뷰뿐만 아니라 실제 학교에서 시행되는 원격수업을 직접 관찰하며 조사하는 연구를 병행한다면 더욱 풍부하고 생생한 원격수업 현황에 대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교사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원격수업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인식은 분석하지 못하였다. 교육의 주체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그들의 관점에서 원격수업의 인식을 조사하는 연구도 중요하다. 교수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원격수업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원격수업 인식을 조사하는 연구를 한다면 다양한 각도로 원격수업에 대해 살펴볼 수 있고, 더 나은 원격수업을 위한 종합적인 대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Thomas L. Friedman(2020). “Our New Historical Divide : B.C. and A.C.”. NYT.
- 계보경(2020), **COVID-19에 따른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경험 및 인식 분석 -기초 통계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
- 교육부(2020).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2020학년도 초중고특수학교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 교육부 보도자료.
- 교육부(2015). **음악과 교육과정**.
- 권수미, 임은정(2020). **비대면 음악 온라인 원격 수업 실태 연구**. 예술교육연구, 18(3).
- 김영환, 이상수, 정희태, 박수홍(2003). **원격교육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 류미해, 정재은(2021). **교원양성기관의 음악교과 수업에 대한 예비 교사의 온라인 수업 인식 조사**. 음악교육공학, 0(46), 41-59.
- 박상훈, 김은협, 김태우, 유미경, 양성환(2020). **원격교육 수업 실행 방안**. KERIS 이슈리포트.
- 박열, 최진희, 오승주(2020). **학교공간혁신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교실사업 매뉴얼 중심으로-**. 교육시설논문지, 27(4).
- 박종선(2013). **스마트이러닝**. 교문사.
- 박현진(2021). **협동학습 모형을 활용한 원격수업 음악과 프로그램 개발**. 음악교육공학, 0(46), 81-102.
- 손혜숙, 진설아(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학 교육 탐색 : 블렌디드 수업의 가능성 연구**. 문화와 융합, 43(2).
- 신나민, 이선희, 김수연(2020). **교사와 예비교사를 위한 원격교육론**. 박영스토

리.

신동희(2014). **인간과 컴퓨터의 어울림**. 커뮤니케이션북스.

신민경(2021). 원격 수업 플랫폼을 활용한 중등학교 음악 수업 실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윤대구(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의 뉴노멀을 이끄는 주요 트렌드**. KISA REPORT, 12.

이동주, 임철일, 임정훈(2009). **원격교육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임지현, 민경원(2021). **비대면 가창 수업 방법 고찰**.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15(1), 27-38.

전혜진(2021). 중등 음악교육에서의 원격수업 지도현황과 교사 인식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인성, 나일주(2004). **원격교육의 이해** 제2판. 교육과학사.

ABSTRACT

Investigation of Teachers's Perceptions of Music Untact Classes in the COVID-19 era

Youn Sunhye

Music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lp more effective music remote classes in the future by investigating the current status of remote classes in music subjects made due to COVID-19 and teachers' perceptions of them. Therefor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4 secondary music teachers who conducted remote classes in 2021, and the contents were about the support and planning of remote classes, the current status of guidance by activity area, the results of remote classes, and students' attitudes, strengths and improvements. Based on the transcribed data, the interview contents were coded and analyzed using Excel, and the results of the study through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Regional Office of Education provided guidance on remote class operation guidelines, but the content

related to music subjects was insufficient. Therefore, teachers prepared remote classes through collaboration with fellow teachers. In addition, there were variations in school support for remote classes for each school.

Second, most of the teachers operated remote classes as real-time interactive classes. The appreciation area was a lecture-style class that wa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existing face-to-face classes, and it was conducted the most because there was no burden on teachers. However, he felt that there was a limit to conducting practical classes remotely and demanded improvement of the functions of the platforms in use.

Third, students' particip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fell compared to face-to-face classes, and students hoped to go to school and have face-to-face classes.

Fourth, the positive effect of remote classes felt by teachers was that they were able to proceed with music classes away from the risk of infection, and presented various forms of school classes to prepare for future classes. It also provided an opportunity for students to practice self-directed learning and allowed them to communicate with passive students through chatting.

Fifth, the negative impact of remote classes felt by teachers is that students have difficulty concentrating on classes and that the learning gap between students has also widened. In addition, students' opportunities for musical activities were limited, and individual feedback became difficult.

students to practice self-directed learning and made it possible to communicate with passive students through chatting.

Fifth, in remote classes, students have difficulty concentrating on the class, and the learning gap between students has also widened. In addition, students' opportunities for musical activities were limited, and individual feedback became difficult.

<부 록 1>

코로나19 시대의 음악

원격수업에 대한 교사 인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 전공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윤선혜입니다.

본 질문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개학이 시행됨에 따라 이루어진 음악 교과 비대면 수업 운영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원격 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집된 자료들은 앞으로 더욱 효과적인 원격 수업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자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뷰 녹취는 연구를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을 철저히 보장할 것을 밝힙니다. 또한 녹취는 전사 후 완전히 폐기될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 인터뷰에 응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 전공 윤선혜
지도교수 현경실

기본적 사항

1. 선생님의 교직 경력은 몇 년인가요?
2. 중학교에서 근무하시나요? 고등학교에서 근무하시나요?
3. 선생님의 세부 전공은 무엇인가요? (ex, 바이올린, 작곡, 성악 등)

원격 수업 준비 및 지원

<교육부 운영안>

1. 교육부에서 내려온 원격수업 운영안은 보셨나요? 학교에서 바로 적용 가능했나요?
2. 적용 가능하지 않았다면 어느 부분의 설명이 부족했다고 느끼셨나요?

<원격수업관련 연수 및 교육>

1. 코로나 이후 원격수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받았다면 어떤 연수를 받으셨나요?
2. 받은 교육 및 연수는 수업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했나요?
3. 적용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은 어느 부분이었나요?
4. 더 나은 원격 수업을 위해 추가로 원격 교육 연수를 받는다면 어떤 교육을 가장 받고 싶으신가요?

<학교의 지원 및 동료 교사와의 협업>

1. 원격 수업을 위한 장비 구입, 기자재 지원, 시스템 구축, 콘텐츠 제작 지원 등에서 학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어떠했나요?
2. 원격수업을 위한 학교만의 가이드가 있었나요? 혹은 동료 교사와의 협업이 필요했나요?

<음악과 연간계획 수립>

1. 코로나 현황에 따라 원격 수업과 대면 수업이 고정적이지 않고 계속해서 변동이 생기는데 한 학기(혹은 1년) 단위로 수업 계획을 세우실 때 어떤 식으로 짜셨나요?

원격 수행 실행 및 평가

<사용한 원격 수업 유형>

1. 원격 수업은 어떤 유형으로 진행되었나요?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 콘텐츠 활용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기타)
2. 그 유형으로 수업을 진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교 정책이었나요? 선생님의 선택이었나요?
3. 그 유형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플랫폼>

1. 그럼 수업 때 주로 사용하시는 플랫폼은 무엇인가요 ?
2. 사용하시는 플랫폼에 제일 먼저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기능인가요?

<영역별 지도 현황>

1. ○○ 영역은 원격 수업으로 지도해보셨나요? 수업이 어떤식으로 진행되었나요?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생활화>
2. 그 영역을 수업하시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3. 그 영역을 수업하시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4. 어떤 영역의 수업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5.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6. 원격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음악적 흥미를 끌 수 있는 영역은 어떤 영역이었나요?
7. 반대로 가장 힘들었던 수업은 무엇인가요?

<온라인 평가>

1. 평가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나요? 한다면 어떤 영역을 어떤 식으로 평가하시나요?
2. 비대면 평가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원격 수업 결과 및 학습자의 태도

1. 교실수업과의 참여도는 많이 달랐나요?
2. 학생들의 참여 유도는 어떻게 하셨나요?
3. 대답을 하지 않거나 화면을 꺼버리는 학생들은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4. 학생들은 음악 수업을 계속 원격수업으로 하고 싶어하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나요?
5. 원격 수업 이후 학생들의 학습 성취 수준은 어떠하였나요?

원격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1. 원격 수업의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 원격 수업의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3. 원격 수업의 부정적인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쳐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